

현 의료서비스 어디까지?



환자도 소비자이다.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곳이며, 아픈 곳을 치료해준다는 이유일까? 현 의료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업에 비하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 물론 요사이 많은 병원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마련코자 노력하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인 환자가 중심이 되기엔 너무나 멀리 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그에 대한 작은 방편으로 불합리한 의료서비스와 규제현황을 알아보았다.

검사 및 진료 태만으로 폐렴을 정상으로 진단

강모 씨(68세)는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고열이 나고 기침과 가슴 통증이 발생했다. 담당의사는 증상호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설명하며 복부의 단순 방사선 촬영을 지시했다.

필름 판독 후 변비가 있다고 해 약물을 투여 받았으나 기침, 가래, 발열이 지속되고 호흡 곤란까지 발생됐다. 그러나 별 다른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뇌경색에 대한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퇴원했다.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뇌경색은 악화되지 않았으나 급성 폐렴이 발생된 것으로 진단되어 20여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강씨는 가슴통증과 지속적인 기침·고열을 호소했으나 청진이나 촉진을 하지 않고 증상과 무관한 복부의 사진만 찍게 해, 폐렴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담당의사는 입원기간이 짧고, 환자의 증상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자의로 퇴원해 폐렴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처리 결과는 이력했다

입원 당일 흉부 X-선에는 폐렴의 증상이 보이지 않았으나 3일 후 복부 X-선에서 폐렴의 증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병원에서 복부 필름을 잘못 해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지속적인 환자의 증상 호소를 소홀히 여겨 폐렴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에서 방사선 필름 판독 잘못과 진료 소홀의 책임을 인정하여 폐렴치료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배상했다

췌장암을 장염으로 진단해 사망

윤모씨(65세)는 복부통증과 설사가 지속돼 위 내시경 및 복부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장염으로 진단됐다. 한 달간 통원 치료를 통해 장염에 대한 약을 복용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복통과 설사가 더 심해졌다.

입원해 대장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염증으로 진단되었다. 보호자는 담당의사에게 복부 CT 검사를 요구했으나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당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받은 결과 췌장암 말기였고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돼 통증완화 조치만 받다가 사망했다.

유가족은 지속적인 복부통증 및 설사의 원인을 단순한 장염으로 생각해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받지 못했으며, 신변정리 기회상실, 기대수명단축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췌장암은 위치 상 발견하기 어렵고 특별한 증상도 없어, 진단이 어려우며 치료결과도 좋지 않아 여명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처리 결과는 이력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질환 등 비정상적 소견이 의심되었고, 지속적인 장염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복부 CT 등 추가 정밀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이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배상했다. 췌장암은 특별한 증상이 별로 없고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환자의 90%가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퍼진 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

복부통증, 황달과 오심, 설사, 체중감소의 증상이 있으나 일반 검사로 진단하기 어려우며 복부 초음파 및 컴퓨터 촬영에 의해서만 진단될 수 있다.

拔萃 - <http://www.cpb.or.kr>